

제 6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0년 6월 20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고대 정치철학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속에 함축된 의미는 그것이 정치철학의 고전적인 형태라는 점이다. 고전이란 한때 귀족적인 단순함과 정적인 장엄함이 특징인 것으로 말해진 바 있다. 그와 같은 시사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또한 종전에 일컬어진 고대사상의 <자연적> 성격이라는 것을 명료화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여기서 <자연적>이란 단지 인간적인 것 혹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든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략- 고대 정치철학은 비전통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정치적 전통들이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아직 정치철학의 전통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풍요로운 시기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고대 정치철학자들이 정치적인 것들을 그 이전의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하면서도 사물 그대로 직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연유한다. 그들은 정치적인 것들을 계몽된 시민이나 정치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도 계몽된 시민이나 정치가가 명확히 볼 수 없었거나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계몽된 시민 혹은 정치가들이 보는 방향에서 그들보다 더 멀리까지 보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외부에서, 정치생활에 대한 관객으로서 정치적인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민들과 정치가들의 언어로 말했다. 그들은 저잣거리에서 친숙하지 않은 어떠한 용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정치철학은 포괄적이다.

고대 정치철학자들은 대중에 친숙한 언어를 써 호소력이 있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일 수 있었다.

우리가 현재사회를 생각할 때 최초의 사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의 변화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본질적인 변화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대 정치철학도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생기기 전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은 무례한 자를 분쇄하며 정복된 자를 구제하는 진정한 정치가의 도량 있는 융통성을 재생하고 완성에 이르게 한다. 정치철학은 또한 모든 환상으로부터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이란 근절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적정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에 생명을 불어넣은 정신은 고요함 또는 승화된 냉정함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서 언제나 옳은 정답은 없다.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치행위도 항상 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장기를 두는 것과 같아서 내 전략보다 상대의 전략을 더 잘 봐야한다.

환경이 변하면 나의 행동도 변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인물을 악으로 묘사하게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실패하게 된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악은 근절해야할 대상이되므로 우리는 가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잃게 되는 셈이 된다.

이성은 적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고, 가까이 두라고 말한다. 중용의 미덕 때문이다.

고대 정치철학과 비교할 때 그 이후의 모든 정치사상, 특히 근대 정치사상은 그것의 장점이 무엇이든지 고대 정치철학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것은 후대에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들로부터의 소외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이 정치철학에 <추상성>이란 성격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철학이라는 움직임이란, 의견으로부터 지식으로 향하거나 여기·지금으로부터 항상적이고 영원할 것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향하는 움직임이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중략-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경향의 변화가 추상적인 것들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근대 철학은 원래의 결함을 영속화하였다는 점이며,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구체적인 것들은 진정으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과 법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기업환경은 현실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하므로 법으로 재단할 경우 언제든지 발목을 잡히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성보다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이성에 의지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성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차원의 현상들을 놓치게 된다.

정치철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의 문제를 추상적인 것으로 파악하면 현실은 그 추상성을 인식하는 만큼만 보이게 된다. 이것은 공사현장에 망치를 든 사람이 가면 못만 보이고, 페인트 붓을 든 사람이 가면 페인트칠 할곳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우리는 사고에 지배를 받아 현실을 본다. 따라서 선입견에 갇히게 되고, 정치철학은 고도로 추상화 되었을지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함을 계속해서 안게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한 가지 예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오늘날 학계 일부에서는 정치학 혹은 사회과학의 기본 임무란 가장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관계란 나-너-우리의 관계라고 부른다. <너>와 <우리>가 데카르트적 자아를 보충한다는 적은 자명하다. -중략- 친구에게 말할 때 나는 그를 2인칭으로 대한다. 그러나 철학적 혹은 과학적 분석은 친구, 즉 지금 여기의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분석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말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분석은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체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기껏해야 그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 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를 너가 아니라 친구라고 부른다. 분석적 혹은 객관적인 언어에서 <-에 대해서 말하기>가 적합하려면 그 근거가 있으면서 인간적 삶에 본원적인 <-에 대하여 말하기>의 양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친구> 대신에 <너>라고 말할 때 나는 객관적인 언어로써 보존될 수 없는 것을 객관적인 언어로써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나는 객관화될 수 없는 어떤 것을 객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오직 <-에게 말하기>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에 대하여 말하기>로써 보존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을 범하며 현상에 충실하지 못하고 바로 구체적인 것을 놓친 것이다. 순수한 인간적 소통의 기초를 확립하려고 시도하면서 나는 순수한 인간적인 소통에 무능한 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객관화 시킬 수 없는 것을 객관화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터에 반드시 누군가는 나가야하지만 그것이 내 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객관화된, 추상화된 군인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이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쪼개는 단위인 나-너-우리와 같은 것들은 칸트가 물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고 객관화 시킬 수 없다. 그것은 추상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것에서 쪼개진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조립을 한들 과학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연기를 쪼개고 나누고 붙인들 그것은 여전히 연기이기 때문이다.